

특별기고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스마트공장'이란 전통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 개별공장의 설비·장비·공정이 똑똑해져 생산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모든 생산데이터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해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공장으로 공장간의 협업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생산체제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간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등 5개 기관에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제조업 전반에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

'상생형 스마트공장' 무엇이 좋은가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우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으로 스마트공장이 최적이란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 상승 기여

'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기존의 제조경쟁력강화 중심의 지원활동에서 판로개척, 인력양성, 신기술 접목까지 종합지원을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00억원, 삼성전자가 500억원을 지원하여 향후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 약 2,5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중기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씩 200억을 지원, 5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남에 따라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고 모든 수준의 참여기업에 150명의 현직 삼성전자(주)의 제조공정혁신활동 멘토단이 투입되며, 구축 후 중소기업중앙회 및 삼성전자(주)의 인력양성교육, 판로개척 지원, 기술개발 지원,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IT솔루션 보급 사업에서 기업현장을 진단하는 컨설팅사업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한 번의 단발성 지원보다 각 기업이 비전을 갖고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로 심화시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공장을 통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중간판 계약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는 단계로 진화·발전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이 혁신성장의 교두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4차산업혁명기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기반정책으로 위상이 제고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

은,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을 기치로 침체된 기업의 기(氣)도 살리고, 그동안 우리의 제조업 성장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인 제조업 연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기반정책 마련·확대 대야

지난달 중기중앙회 지역본부가 개최했던 광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기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부 조달 참여시 가점반영 등 정책 인센티브 부여,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컨설팅업체 양성하고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유예기간을 완화해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건의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포럼을 통해 발굴한 건의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지자체의 지원규모도 확대되어 지원정책이 적극 실행돼 '상생형스마트공장사업'이 우리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려 제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5·18 가짜뉴스' 근절돼야

'가짜뉴스'가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뉴스시간에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쓸 정도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마구 생산, 재생산되고 있다. 역사 왜곡을 불러오고 사악한 선군부 대응 논리로 확대돼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인문시민연합이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5·18 가짜뉴스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확대설 ▲유공자 명단 비공개 ▲계엄군 성폭력 등 주제가 광범위하다. SNS에 퍼 나르면서 새로운 가짜가 불어 부풀려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5·18 관련 가짜뉴스를 특정세력이 생산, 재생산하면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5·18 가짜뉴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언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짓과 진실의 틈새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허점을 이용해 역사왜곡까지 시도하고 있다.

'5·18 가짜뉴스'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사회적 패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과거 특정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지금은 가짜가 된 말과 논평, 뉴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한다.

'5·18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학계와 언론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민의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 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왜곡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독자 및 시청자, 유권자, 그리고 역사가 결국 가짜를 가려낼 것이다. 하지만 가짜가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회재난 미세먼지 총력 대응해야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봄에만 발령되던 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제 겨울에도 수시로 내려진다.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불청객이 됐다.

지난달 29일 광주지역 미세먼지 최고농도가 222.0µg/m³(매우 나쁨)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평균수치는 95.0µg/m³(나쁨)으로 측정됐다. 특히 지난달 29일 중국발 황사로 최고 222.0µg/m³까지 올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다음날 해제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50µg/m³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하면 발령한다.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µg/m³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제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 천식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이 쥐의 기도도와 식도에 미세먼

지 표준물질을 투입해 들여다본 결과 입을 통해 유입된 것들은 이들 만에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 반면, 코를 통해 흡입되면 이들 뒤에 60%가량 폐에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에는 일주일 이상 걸렸다.

정부는 2016년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내년 2월15일에 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는 비용이 들고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이제 사회재난이다.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다.

기고



김상섭

광주 동구 복지경제국장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이웃과 서로 돕고 가까이 지내면 먼 곳에 있는 친척보다 더 친하고 다정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웃과 친하게 지내게 되니 더 애교 붙이는 일이 많은 요즘, 이 속담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고 말았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 과밀화는 공존보다 경쟁 구조를 만들어 '이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한 인정보다 다툼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광주 동구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구정목표를 내세웠다. 바로 '이웃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동구를 꿈꾸며

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라는 슬로건이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도우며 또 도움을 받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동구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은 물론 복지저점센터 건립, 복지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현물긴급복지 프로그램 '행복상자', 고독사 방지를 위한 '행복전화', 독거세대와 주민들을 잇는 '1촌결연 맺기'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다. 기초지자체 중 전국최초로 시도하는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은 기존 광역시 단위의 획일적인 복지기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무엇일까 궁리할 결과다. 주민 누구에게나 최저 수준 이상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지는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10월 민·관 사회복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해 11월까지 연구와 회의 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돌봄

이웃 범위가 법정저소득 기준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이하에서 긴급복지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75%까지 분류하게 돼 좀 더 많은 이웃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생활기준, 흡서기·흡한기 대비 기준, 돌봄대상 기준, 교육 및 문화기준 등 다양한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예컨대 계절별 방한복·속옷개수·외출복·마스크·방한용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물론 여름철 보양음식 섭취횟수, 겨울철 전기매트나 난방비품, 건강관리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세밀한 기준들은 추후 복지공동체를 비롯한 개인·단체의 후원이 있을 경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보다 주민중심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성서에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나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만이 도움을 줬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21세기에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관심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폴란드·독일·스위스·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지만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치열하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라는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보다 시민들 스스로 호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싶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 동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이웃공동체의 밑거름이며,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올겨울 지구온난화 탓에 기습한파가 잦아진다고 한다. 추운 겨울밤 얇은 옷이불과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웃이 없도록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보는 살맛나는 동구가 되길 희망해 본다.

특지광장

산업도시가 공장의 대량화, 밀집화되면서 목재가공, 석유화학, 조선소 등 공장화재의 피해액이 대규모가 되며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공장 내부에 수용물이 종이박스, 비닐박스, 플라스틱, 경유 등 위험물질인 인화성, 발화성성이 강하고 많이 산적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화재가 진전되며 연소확대 우려가 많다.

대형 공장화재를 예방하려면 우선 공장 내·외부의 주변 환경정리를 철저히 잘 하고, 노후하고 불량전선을 적정환시

공장화재예방 주변환경 정리부터 습관화해야

기 즉 5년에 최소한 한 번씩 교체해 전기합선, 전기누전, 과부하, 과열 및 정전기를 예방하며, 작업을 중지할 때에는 철저히 전원차단을 해야 한다.

쓰레기통 담배꽂이 주의, 쓰레기 소각 주의, 급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담뱃꽂이를 사전에 예방한다. 공장 내부의 구조나 설비 또는 기계, 가구를 수선이나 수리할 때는 가연물 제거 및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산소용접이나 절단 및 작업을 실시한다.

쓰레기 등을 소각 할 때 119신고를 철저히 하며 LPG, LNG 등 가연성이 높은 가스를 취급할 때는 매일 1회 이상 가스누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안전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와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공장 내부의 통풍이 양호하고 가스의 저장온도는 40℃ 이하이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저장창고에 넣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자체난방을 하기 위해 유류를 저장한 위험물탱크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누유와 유증기를 잘 제거하고, 유사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소화기 방화수 및 방화사를 비치하여 신속한 진압대응을 갖춘다. 육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을 때 사전에 자위소방대 등을 조직해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를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공장관계자 및 경비원 등 주·야간 방화순찰을 철저히 하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각 가정 차량 및 업소에 반드시 소화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해야 할 것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119소방서에 신고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연소로 알고도 반드시 파난유도하며, 연소 확대 방지를 하면서 화재를 진화해야 한다.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백인선

광주시 산하기관장 물갈이 가속도

가지수첩

민선 7기 광주시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됐다. 이용섭 시장이 취임 직후 내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방향성 등을 평가해 임기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는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등 모두 24곳이 있다.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은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9곳이다.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김성호 사장이 임기를 절반 남은 시점에서 자진 사임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적지 않은 기관의 수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시장 취임 이후 선거캠프 인사들이 대거 임성한 만큼 향후 산하기관장 인선에서도 캠프 출신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다. 선거캠프나 인수위급인 혁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체로 이 시장과 '방향성'도 맞고,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산하기관장 인선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한 대목이다.

게다가 그동안 이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의 혁신을 강조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던 점도 물



황애란
정기부 차장

갈이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 3일 정례회의의 메시지는 이와 일맥상통하다. 혁신·소통·청렴을 가로막는 비혁신적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혁신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선거캠프 인사, 동문 등이 대거 임명되면서 보는·정실인사들이 대거 임성한 만큼 향후 산하기관장 인선에서도 캠프 출신들이 중용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다. 선거캠프나 인수위급인 혁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체로 이 시장과 '방향성'도 맞고,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산하기관장 인선에 다소 유리할 수 있을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한 대목이다.

취임 초마다 논란이 된 산하 기관장 인사, 이용섭 시장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월간)
회장 박철호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철호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경제부 (062) 720-1066-67 사회부 (062) 720-1050-54 사회 2부 (062) 720-1043-45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진 부 (062) 720-1040
편집부 (062) 720-1070 기획실 (062) 720-1005 논설실 (062) 720-1032 월간국 (062) 720-1006-07 관리국 (062) 720-1012 판매국 (062) 720-1098 사업국 (062) 720-1011 광고인사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다원인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가성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